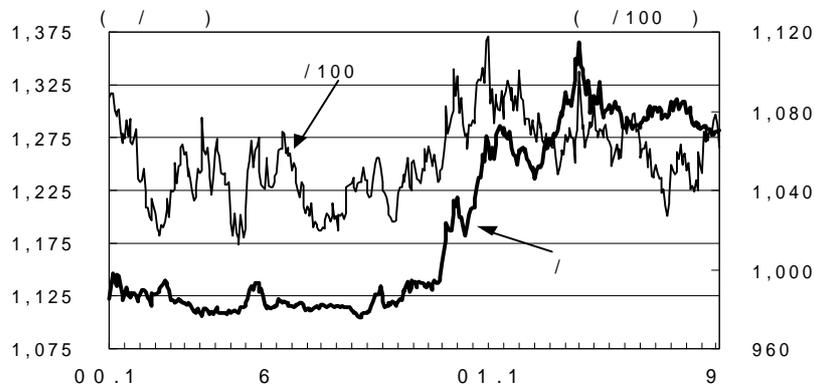


# 금리·주가, 강보합 예상

## 원화 환율

- (동향) 8월 하순 들어 IMF 대출 자금의 상환 마무리, 달러화 하락에 따른 엔화 환율의 안정세 등의 영향으로 원화 환율은 8월초의 1,300원대에서 1,280원대까지 하락함
  - 8월 23일 외환 위기 이후 IMF로부터 차입한 총 195억 달러 중 마지막 잔액 1.4억 달러의 상환, 그리고 8월말 현재 외환보유고 990억 달러 등은 외환시장을 크게 안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
  - 또한 미국 경제 지표들이 급속히 악화되는 과정에서 일본 엔화가 120엔 달러선에서 안정을 보임에 따라 원화 환율도 1,280원대에서 안정을 보였음
- (전망) 향후 미국 달러화의 급격한 약세에 따른 엔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수출 부진 및 국내 경기의 장기 침체 가능성, 엔화 약세화 가능성 등의 영향으로 환율의 움직임은 1,280원~1,300원 수준에서 등락을 보일 전망이다
  - 8월 들어 수출 감소율이 소폭 줄어들고 있으나, 여전히 그 하락폭은 크게 나타나고 있음
  - 또한 엔화 환율도 일본 경제의 침체 여파로 118엔/달러 이하로 하락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보임에 따라 일본 엔화 환율도 다시 120엔/달러 이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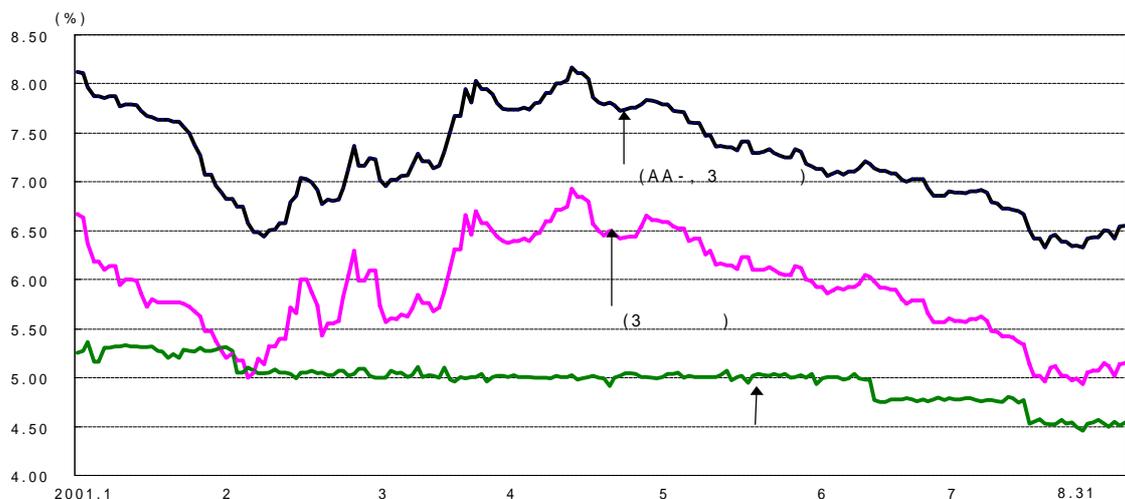
< 최근 원/달러 및 원/100엔 환율 추이 >



## 시중 금리

- (동향) 정부의 금리 정책에 대한 엇갈리는 견해로 인해 금리 변동폭이 확대됨
  - 지난 7, 8월에 이어 9월 중 콜금리 인하 가능성을 두고 시장참가자들 사이에 서로 상충되는 견해들이 나오고 있어 한은 관계자들의 발언에 금리가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음
  - 그러나 변동폭 확대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기조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음
- (전망) 9월 중 콜금리 동결에 따라 당분간 보합권을 유지할 전망
  - 한은이 7, 8월의 두 번에 걸친 콜금리 인하에 의한 실물경기의 과급효과를 지켜본다는 의도에서 9월 중 콜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함
  - 이에 따라 채권시장도 경기 관련 지표들의 추이에 관심을 집중하는 한편, 경기 회복 내지는 침체 장기화에 대한 보다 뚜렷한 전망이 형성될 때까지 관망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
  - 그러나 이러한 보합세는 최근의 금리 일일 변동폭을 더욱 확대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
  - 그것은 경기 전망과 금리 인하의 실물경기 부양 효과에 대한 시장참가자들의 기대가 엇갈리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견해를 달리하는 투자자들 사이의 매수·매도 공방으로 금리 변동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

### < 주요 지표금리 추이 >



## 주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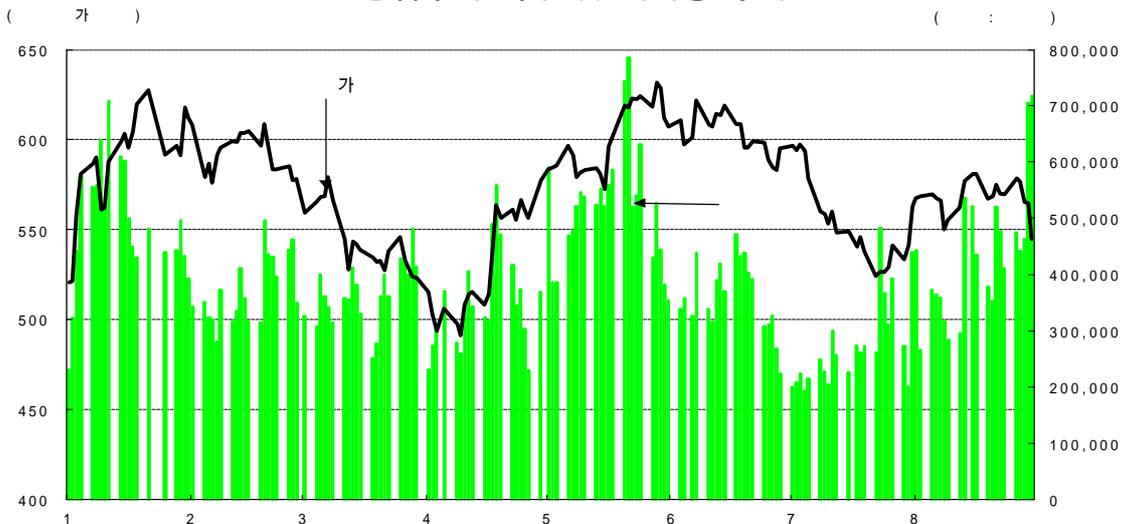
### - (동향)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한 불안감으로 550선 이하로 하락함

- 그 동안 국내 구조조정 기업들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570선대까지 상승 하던 지수는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한 우려로 다시 550선 이하로 하락함
- 한편 해외증시가 미국의 경기관련 지표들이 긍정적 신호와 부정적 신호를 동시에 주는 등 일관된 추세를 형성하지 못함에 따라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도 혼조세를 보임

### - (전망) 전반적인 보합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하이닉스 반도체의 회생가능성 증가로 소폭의 오름세가 예상됨

- 경기회복이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적어도 현재의 보합세가 유지될 것임
- 최근의 금융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했던 하이닉스에 대한 처리가 회생시키는 쪽으로 채권단 의견이 모아지고 있어 당초 우려했던 법정관리나 화의 결정에 따른 금융시장 교란은 당분간 없을 것으로 보임
- 한편 미국의 경기관련 지표들이 여전히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해외증시 영향은 전반적으로 중립적인 것이 될 것으로 보임
- 따라서 당분간 국내 주식시장은 강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 **HRI**

< 종합주가 지수 및 거래량 추이 >



동향분석팀 dcpark@hri.co.kr ☎ 3669-4011